

9월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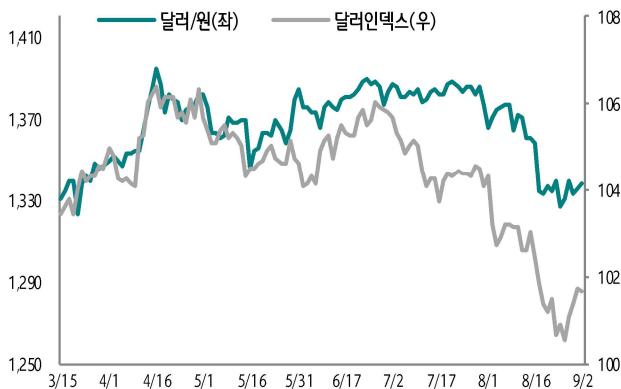
[USD/KRW]

USD/KRW 예상 : 1334~1342원
NDF 증가 : 1335.70 (Swap point : -2.50, 1338.20원)

- (금일 전망) 금일 달러/원 환율은 양방향 수급 영향 속 등락 흐름 이어질 전망. 미 금융시장이 노동절 연휴로 휴장하면서 달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재료가 부재. 이에 금일 발표될 미 8월 ISM 제조업 PMI 데이터를 대기하는 가운데 달러의 움직임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 따라서 오늘도 수출업체 매도물량과 수입업체 결제수요 등 양방향 수급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보임. 다만, 중국 제조업 경기 부진 등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안화 약세 움직임에 영향을 받을 경우 상승 압력이 나타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이에 환율은 1330원대 중후반 등락 예상
- (전일 동향) 2일 달러/원 환율은 예상에 부합한 미 PCE에도 견조한 소비지출로 인한 빅컷 기대 되돌림에 1.5원 상승한 1337.5원 출발. 이어 수급에 따른 등락 흐름 속 2.4원 오른 1338.4원에 증가 기록(15:30). 미 노동절 휴장으로 변동성 제한되면서 2.5원 상승한 1338.5원에 마감

달러/원 환율 상승 요인	달러/원 환율 하락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업체 결제수요 등 매수세 유입 중국 경기 부진 우려와 위안화 약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업체 매도물량 출회 가능성

KRW, USD Index



자료: 인포맥스

[Global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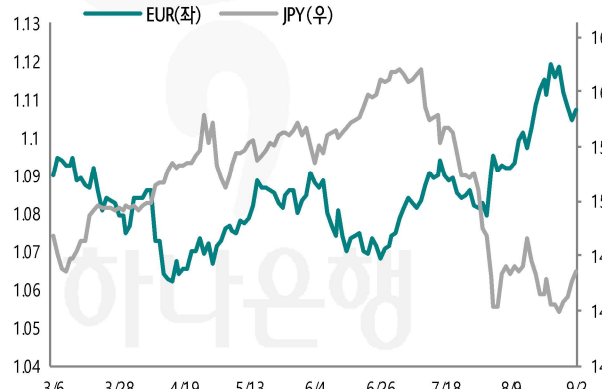
EUR/USD 예상 : 1.1031~1.1111
USD/JPY 예상 : 146.52~147.52

- (USD Index) 글로벌 금융시장은 예상에 대체로 부합한 PCE 데이터를 소화 후 미 노동절 휴장으로 달러 방향성을 결정할 주요 이벤트 및 경제지표 발표가 부재한 가운데 달러인덱스는 0.08 하락한 101.65를 기록
- (EUR) 유로화는 독일 등 유로존 제조업 경기 위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8월 제조업 PMI 확정치가 잠정치 대비 개선되면서 소폭 반등. 유로/달러 환율은 0.0024달러 상승한 1.1071달러로 마감
- (JPY) 엔화는 일본 8월 제조업 PMI가 49.8로 전월비 개선되었으나 신규 주문 수주 감소 등 하부 지표는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약세. 달러/엔 환율은 0.74엔 상승한 146.92엔으로 마감

글로벌 통화 동향

구분	증가(전일비)	재정환율(KRW)
USD Index	101.65 (-0.08)	
EUR/USD	1.1071 (+0.0024)	1481.80 (+5.84)
USD/JPY	146.92 (+0.74)	910.91 (-3.01)
USD/CNH	7.1134 (+0.0242)	188.09 (-0.31)

EUR, JPY



자료: 인포맥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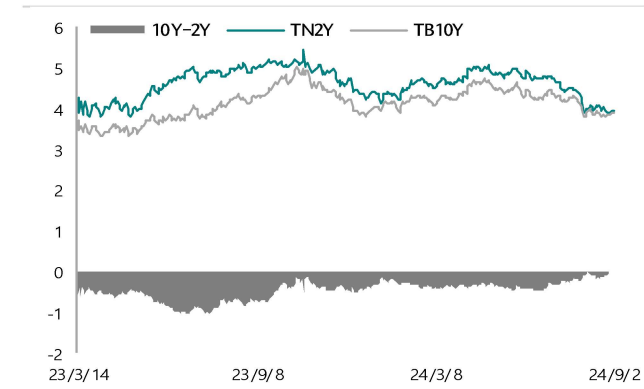
[Macro Analysis]

- 미 금융시장은 노동절(Labor Day)을 맞아 휴장. 독일 8월 제조업 PMI는 42.4로 예비치 42.1에서 상향 조정되었으나 지난 7월 43.2에서 하락하며 지난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 유로존 8월 제조업 PMI는 전월과 동일한 45.8을 기록하며 예비치 45.6을 상회. 프랑스 8월 제조업 PMI 확정치는 43.9로 잠정치 42.1에서 상향 조정되었으나 이전의 44에서 하락. ECB 정책위원 들은 9월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유럽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리스크 간 상충된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리비아는 내정 갈등으로 동부 엘필 유전의 원유 생산 작업이 중단될 수 있다며 불가항력을 선언

주요 경제지표 및 일정

시간	내용	예상	이전
22:45	미국 8월 S&P글로벌 제조업 PMI	48.1	48.0
23:00	미국 8월 ISM 제조업 PMI	47.5	46.8
	미국 8월 ISM 제조업 고용지수		43.4

US Treasury Market



자료: 인포맥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와 관련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양방향 수급 속 1330원대 중후반 레인지 지속